

신호등

오래전 다니던 교회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하여 교회로 향하는 길에 좌회전을 해야 하는 막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 이른 아침에는 자동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빨간불에 좌회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2-3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녹색 신호등을 보고 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나가면서 빨간불이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아차! 하면서 주위에 경찰차는 없는지 두리번거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몇 번 동안 사고도 없었고 경찰에게 발견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왜 그렇게 좌회전을 용감하게 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아직 그 나이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좋지 않은 버릇 때문이었습니다. 좌회전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앞에 신호등을 보고 있어야 하는데 옆에 신호등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오늘 전할 말씀을 생각하면서 습관적으로 고개를 돌려 앞이 아닌 옆을 보면서 신호등이 녹색인 것을 갑자기 발견하고 그 신호등이 내 것 인줄 착각하고 좌회전을 해 버린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한심합니다. 앞만 보고 있어야 하는데 옆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사고가 없었지만 참으로 위험한 일이고, 운전할 때에는 내가 가는 길에 시선을 집중하고 가야함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신호를 주시는지 순종하기 위하여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습관적으로 옆을 봅니다. 그리고 다른 신호를 보고서 내 것을 착각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에 사고입니다. 방황합니다. 옆길로 갑니다. 믿음을 버립니다. 열심을 잃습니다. 모두 다 옆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엿 것을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십니다. 옆에는 생명이 없고 사망의 길이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신앙생활이 저의 운전과 같이 온전치 못하게 달려온 분은 안계십니까? 영적인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보고 기도하며 영적인 삶을 육신으로도 익혀야 합니다. 그 때에 결길로 가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골로새서 3장 1-3절). 우리 앞에서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